

第71回

1月13日, 成功



- 우리協會는 지난 1月1... ○
- 3日 協會研究室에서... ○
- 第71回 發明教室을... ○
- 開催했다. 毎月 둘째... ○
- 土曜日 午後 1時에... ○
-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
- 이달에도 1백여명이... ○
-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 ○
- 었다. 이날 發明教室에... ○

그물침대 텐트 發明人

남양산업 安永男 사장

'83 全國優秀發明展에서 金賞을 수상한 남양산업 安永男 사장은 '86年 發明의 날에 산업포장을 수상하였고, '87년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렇듯 화려한 경력을 지닌 安사장은 100여건을 出願하여 50여건의 登錄을 필한 베테랑 發明人이다.

전기분야를 전공한 安사장이 發明界에 투신한 것은 20여년 전.

당시 육군 통신문관이었던 安사장은 자석식 전화기를 반공전식으로 개발하여 표창을 받으면서 發明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궁금

증이 심했던 그는 일단 발명품을 완성하던 개작을 얹는 옹고집으로도 유명하다.

安사장이 發明한 「그물침대 텐트」는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그의 대표적 發明品 중에 하나다.

美國에 까지 特許로 出願한 이 發明品의 발명동기에 대해 安사장은 이렇게 밝혔다.

『중전의 그물침대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끈끈을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나무가 없는 바닷가나 기타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었죠.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던 중 개발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安사장이 發明한 그물침대 텐트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여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그물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이나 바람막이, 비치파라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發明品이다.

『發明은 산업화가 될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족은 發明人의 큰 적입니다. 판매부터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산업화에 실패한 發明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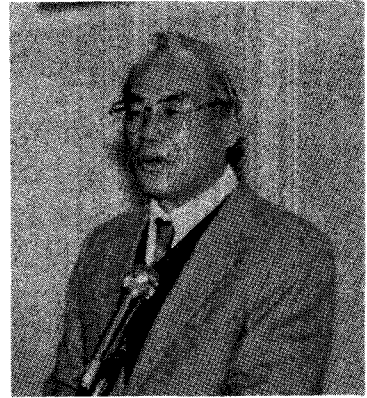
산업화에 성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發明이라고 규정짓는 安사장은 자신의 發明品들을 직접 산업화하고 있다.

특히, 安사장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물침대텐트를 세계 각국에 다량수출하기 위해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發明教室

事例 등 發表

- 서는 남양산업 安永男...○
- 사장과 P.S.I 상사 金逸...○
- 有 사장의 成功事例...○
- 發表에 이어 洪載日...○
- 韓理士의 「工業所有權...○
- 制度에 대한 강의가...○
- 있었다. 두 發明人의...○
- 成功事例를 간추려...○
- 紹介한다. <尹榮洵記>...○



AIR-CONDITION DRAIN-PAN 發明人

P.S.I 상사 金逸洧 사장

55세에 美國으로 건너가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 어엿한 發明 企業人으로 성공하여 고국에 돌아온 P.S.I 상사 金逸洧 사장.

그가 發明한 AIR CONDITION DRAIN-PAN 은 '더이상 좋은 開發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찬사 까지 받으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發明品이다.

『發明人是 고독합니다. 더군 다나 美國人들은 동양인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美國에서의 외롭고 힘들었던 發明人의 길에 대해서 金사장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뭔가 發明해

서 美國시장을 석권해보겠다는 신념과 의지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

金사장이 AIR-CONDITION DRAIN-PAN을 發明한 것은 동부(美國) 굴지의 APT사업체인 CHARELS & SMITM MANAGEMENT CO.의 기술자로 채용되어 종사할 때였다.

에어콘의 필터교환을 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고있는 배수장치가 철관으로 제작되어 있어 쉽게 부식됨을 발견한 金사장은 철관대신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등 문제점들을 개선, AIR CONDITION DRAIN-PAN 을 發明하게 됐다.

그는 곧 韓國으로 돌아와 금형을 제작하려했으나, 그럴 만한 자금이 그에겐 없었다.

金사장은 할 수 없이 아크릴 판으로 모형을 만들어 美國으로 가져갔다. 美國에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지원자를 만나 금형제작을 하게 됐으며, 그제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어느 APT를 갔다가 수북히 쌓여있는 MADE IN KOREA 의 發明品을 보았습니다. 그때 전 그 두텁고 보이지않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發明品으로 상을 받게된 날,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시상식에서의 그 박수소리가 제게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더군요.』

發明人으로서의 보람을 이야기하는 安사장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엮보였다. <♣>